

청년 성공 창업 위한 협업 아이디어 봇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청년창업협업워크숍 성료

해외시장 진출 전략·클라우드 펀딩 자금 조달 특강
경진대회서 ‘악마크루’ 대상, ‘파더스터치’ 최우수상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정현)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광주CGI센터에서 ‘2016 청년창업협업네트워킹&아이디어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스마트벤처창업학교와 광주전남SW융합클러스터 사업 주체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다.

워크숍에서는 ‘광주스마트창업의 지속적 인 성장 지원 계획’을 주제로 장병안 국회의원, 김영환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 장기적인 경기침체속 창업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또 이 자리에서는 스타트업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 전략과 클라우드 펀딩을 이용한 자금 조달 방안 등에 대한 특강도 진행됐다.

창업팀들은 2박 3일간 멘토링과 함께 하는 ‘스마트벤처 아이디어융합 경진대회’에 참가해 정보를 공유했고 사물인터넷(IoT), 앱 서비스,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 아이디어를 내놨다. 아이디어가 실질적 사업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멘토링이 제공됐다.

경진대회 결과 대상은 ‘중국어학생에게 한식의 대중화 서비스’를 선보인 아크마프로젝트(차영록)와 울로크루(김정현)이 팀을 이

룬 ‘악마크루’에게 돌아갔다. 투스라이프(주현성), 에쓰아이(양상인), 헬씨토이랩(정현석)으로 구성된 ‘파더스터치’가 ‘IoT’기반의 공유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광주CGI센터에서 진행한 ‘2016 청년창업협업네트워킹&아이디어융합워크숍’에서 스타트업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 전략과 클라우드 펀딩을 이용한 자금조달 방안 등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

정보 제공 앱서비스’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디콤파(이정민), 홍카(조용현), 주식회사팔칠구삼(박덕화) 팀인 ‘광주투루노’는 ‘IoT’ 기반 청소 앱서비스’로 우수상을 받았다.

울로크루 김정현 대표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다른 창업자들과 나의 사업을 함께 고민하고 멘토링과 심사를 통해 개선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광주진흥원 음악창작소에서 발굴한 인큐베이팅 인디밴드 ‘재즈이

노베이션’은 어쿠스틱 힐링 콘서트를 열어 열기를 북돋았다.

한편 광주스마트벤처창업학교는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 창업지원 시설을 구축했다. 향후 광주전남 SW융합클러스터에서는 내년에도 창업 랩 2기를 모집, 특강 및 멘토링을 통해 스타트업을 육성·지원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조계현 소장의

창업 이야기



예비창업자 독립창업 증가 왜?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민하는 요소의 하나는 창업 형태다. 다시 말하면, 예비창업자는 창업을 고민하는 시점부터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에서 창업박람회, 창업설명회, 창업교육에 참가한 예비창업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예비창업자 중에서 프랜차이즈 창업보다 독립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 6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프랜차이즈 창업보다 독립창업을 선호하는 것일까. 예비창업자에게 이를 반대로 물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게 되면 웬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가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이를 바꿔 말하면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예비창업자가 이런 인식을 하게 된 경로는 대부분 인터넷 정보·뉴스가 주를 이루지만, 실제로 비슷한 경험을 해본 이들도 일부 있다.

왜곡된 정보에 의해 잘못된 고정관념을 예비창업자가 가질 수 있다고 해도, 이러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데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면 독립창업을 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비창업자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독특한 아이디어와 디자인 콘셉트, 서비스로 무장한 젊은 창업자들의 골목상권을 살리는 성공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외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 독립창업을 실시하는 초기 단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꼼꼼하게 하여 현재 운영 점포의 안타나 삼으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과 동시에 가맹점 전개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 없이 수행하기도 한다.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을 장단점은 확연하게 존재한다. 굳이 그 내용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예비창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순쉬운 창업 과정과 적은 비용 부담, 해당 업종의 사업 지속성 여부 등이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에는 프랜차이즈 창업이 비교 우위에 있다. 실제 프랜차이즈 창업을 했을 때 성공률이 독립창업에 비해 높다는 것도 통계적으로 입증돼 있다.

예비창업자들이 독립창업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며,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의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불신의 벽을 타파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 확장에만 열을 올리며 기존 가맹점주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도덕적인 책임감을 갖고 상생하는 경영을 통해 신뢰를 키워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립창업, 프랜차이즈 창업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예비창업자들은 철저한 준비없이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사실을 숙지하고, 성공창업을 위한 밑거름을 충실하게 다져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장>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사업 실적 저조

현지 인큐베이팅 교육 등

5년간 332억 투입 불구

창업률 5% 미만 ‘미미’

지난 5년간 약 332억의 예산이 투입된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사업이 저조한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창업률도 5% 미만의 미미한 수준이었다.

1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해외창업 지원 사업이 출범한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국내교육 및 현지 인큐베이팅 지원을 받은 수료자는 총 689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중 실제로 창업에 성공한 사례는 2015년 기준 31건에 불과하다.

수료자 수 역시 최대를 기록한 작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 지난해 지원사업 수료자는 국내교육 273명, 현지 인큐베이팅 58명으로 총 331명에 달했다.

그러나 국내교육을 해외 인큐베이팅에 흡수, 개편을 시도한 올해 수료자는 작년보다

약 45%도 못 미치는 76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하반기 추가모집 후 늘어난 숫자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012년부터 중국·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 등 해외 5개국에서 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민간 업체에 위탁해 해외창업 교육을 지원해오고 있다. 생활환경과 수요에 따라 올해부터는 태국, 인도네시아도 대상국가에 포함됐다.

지원 사업은 국가별 국내교육 및 현지 인큐베이팅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교육은 사전준비, 국가별 경제동향, 법률, 세무·회계, 창업성공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현지 인큐베이팅은 6주간 현지에서 체류하면서 실제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구체적 시장조사, 입지분석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기간 나라별로 2차례씩 국내교육(100시간)과 현지 인큐베이팅(6주)을 분리해 지원자를 선발한 중기청은 이같은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올해부터 국내교육을 40시간으로 축소하고 이를 수료한 지원자에 한해 현지 인큐베이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하지만 단기간의 교육만으로 해외 창업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지원 사업에 할당된 예산은 100억원. 국내교육 및 현지 인큐베이팅 참가 비용(강사비, 컨설팅비 등)과 현지 인큐베이팅 기간 중 참가자 체제비(숙박비, 사무실 임차비 등) 등이 계획된 금액이다.

왕복항공료와 현지 교통비, 식비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영훈 중기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국내에서도 소자본 창업이 어려운 마당에 40시간의 교육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며 “특히 국가별로 현지 국민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마련하기 때문에 해외창업은 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중기청은 내년부터 국내교육과정을 폐지하고 현지 인큐베이팅에만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내년 정규직 채용” 65%

사람인, 378개 기업 설문

내년 취업시장에서 정규직 일자리는 더욱 찾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기업 378개사를 대상으로 내년 채용 계획을 설문한 결과 내년 정규직 신입이나 경력을 뽑는 기업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내년에 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기업은 65.3%로, 올해 신입을 채용했다는 응답(70.1%)보다 4.8% 포인트 낮았다.

계획 중인 신입사원 채용 방식은 수시(61.9%), 공채·수시 모두(25.1%), 공채(13%)의 순으로 신입 채용에서도 수시 채용이 공채보다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채용 예정 분야는 제조·생산(30.4%)·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력직 채용 역시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정규직 경력사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56.1%였다. 올해 경력직을 채용했다는 기업(59.8%)보다 3.7% 포인트 낮은 수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건)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24시간 OPEN!!

참숯가마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금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참숯을 전방위 그리고 화순도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